

6월 멸종위기종에 '독미나리'..."함부로 채취하거나 먹지마세요"

yna.co.kr/view/AKR20240530069800530

2024년 5월 30일



이재영기자

대관령 일대 서식...습지 줄면서 2005년 멸종위기종 지정

어린 순은 울곡 이이도 즐겼지만...뿌리와 줄기에 '맹독'



독미나리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뿌리와 줄기에 독을 지녔지만,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며 물을 정화해주기도 하는 '독미나리'가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독미나리는 북방계 식물로 아시아·유럽·북미 북부지역과 중국, 일본 등에 널리 분포해있다.

국내에선 강원 대관령 일대와 전북 군산 쪽에 서식하는데, 군산의 경우 과거 약용으로 재배 하던 개체의 후손이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독미나리의 최남단 서식지다.

독미나리는 습지나 하천 주변에 사는 수생식물이기도 한데 도로를 건설하거나 농수로로 정비하면서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줄어 2005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랐다.

독미나리는 높이가 1m 정도로 전체적으로 털이 없으며 땅속줄기는 녹색이고 굵으며 마디가 있다. 땅속줄기 마디는 죽순처럼 안이 비었다. 잎은 길이가 30~50cm이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독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독근근(獨芹根)이라고 불리며 약으로 쓰였고 어린 순은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과거 율곡 이이가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쪽에서 수학할 때 대관령에서 독미나리를 가져다가 옮겨 심고 나물로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2006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 조사 때 대기리에서 독미나리 자생지가 확인됐는데 당시로선 이 자생지가 국내 유일 독미나리 자생지였지만, 이미 지방도로 확장·포장 구간에 편입돼 관련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사라질 위기였다. 다행히 땅 소유주와 당국이 협의해 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당국이 땅을 매입해 자생지가 지켜졌다.

지금은 율곡 이이처럼 독미나리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기에 무허가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시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뿐 아니라 독성을 고려해서도 독미나리를 함부로 먹어선 안 된다.

독미나리 땅속줄기와 뿌리에는 레진의 일종으로 신경계에 작용하는 맹독인 시큐톡신이 있다. 시큐톡신은 가바(GABA) 수용체를 억제해 구토, 복통, 설사, 발한,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양이 많을 경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을 멎게 할 수 있다.

2024년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하얀 꽃차례가 아름다운 두 얼굴의 육상식물

독미나리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일부 습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1m까지 자라며 독성을 가지고 있다. 5~6월 흰 꽃이 피고 꽃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설보의 자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성이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공수염, 허파병 등의 치료제로 사용하며, 음식 아저가 어린이를 식용으로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독미나리 보전을 위한 노력

식물계 식물인 독미나리는 우리나라가 최남단 분포지이고, 소수의 개체군이 생육하고 있어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다. 도로 건설과 농수로 정비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환경부에서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2006년에 자생지 학술 군사 현장에서 독미나리가 발견되어 생육지 보전을 위해 2007년 노선을 변경하는 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육상식물
독미나리 *Cacalia yomena*
크림 2024년 6월 10일

숨은 가치를 알아본
선조들의 지혜

독미나리

jylee24@yna.co.kr

관련기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30 12:00 송고